

# 운영 시나리오 작성

📅 날짜	@2023년 7월 24일 → 2023년 7월 26일
👤 담당자	👤 너 제(재) 재민 양
⚙️ 상태	In progress 🛠️

## ▼ 페르소나

### 1. 박운영 (Park Unyoung):

- 성별: 여성
- 나이: 65세
- 성격: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로 댄스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 2. 이영식 (Lee Youngsik):

- 성별: 남성
- 나이: 63세
- 성격: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깁니다. 걷기와 등산을 좋아하며, 산책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공예와 독서를 취미로 하며, 특히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함께 취미를 공유할 친구를 찾고 싶어합니다.

### 3. 김명자 (Kim Myungja):

- 성별: 여성
- 나이: 68세
- 성격: 평소에 여유를 즐기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득한 노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을 즐깁니다. 평소에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별한 의미없이 이것저것 주변을 둘러보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위 세 분의 노인 페르소나들은 다양한 성격과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삶을 즐기고 주변과 소통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 ▼ 박운영

- 평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음.

- 그렇게 찾던 와중 친구들의 추천으로 “어흥”이라는 앱을 접하게 됨.
- 어플의 설명을 보고나니깐, 비슷한 나이대를 위한 앱이라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앱을 다운받음.
-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각종 관심사를 많이 물어보고 신분증 인증까지 꼼꼼히 하는 것을 보고 이 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음. 또한 친구 코드를 입력해서 500떡을 받게 돼 기분이 좋았다.
-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접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소모임 게시판을 둘러보았다.
- 등산, 자전거,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모집하여 소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좋았고, 카드 형식으로 배경은 등산, 자전거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어 좋았다.
- 대부분 방장이 가입을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이라 처음에 거절을 많이 당해서 500떡을 사용해 직접 방을 만들기로 했다.
- 10명 모집을 했는데, 다들 비슷한 거리의 노인복지관을 추천해서 다들 알기도 쉬운 곳이라 이곳으로 모임장소를 지정했다.
- 중간에 일이 있어 못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아낼 길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급하게 못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따로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 남은 9명에서 어린이 복지센터 봉사활동을 하였고, 특히 좋았던 사람과는 찜하기(친구맺기)를 하였다.
- 집에 돌아와서 1대1 채팅도 있어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들 이번 소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70프로 이상이라 추가 떡이 지급되었는데, 떡이 잘 모아져서 재밌었다.
- 다음에는 화상채팅도 해보면서 어플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보고자 한다.

## ▼ 이영식

- 혼자만의 취미활동 이상으로 함께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취미를 공유하고싶은 욕구가 있음.
-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어흥’이라는 앱을 추천받아 다운로드 하게 됨.
-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프로필로 사용될 사진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한 취미 정보 수집 및 나이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며 가입에 완료함
- UI가 한눈에 들어오고 명확해서 어떤 기능인지 구분하기 쉬워 바로 자신과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랜덤화상채팅 기능을 사용함.
- 상대방의 음질이 좋지않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문자 채팅 기능덕분에 등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
- 상대방의 이름은 ‘곽태준’ 서로 알맞은 등산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였고 이내 친해져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프로그램 내에서도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상태를 유지하기로 함.

- 이후 제한 시간에 도달하여 나중을 기약하며 화상채팅을 종료함.
- 복지사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로그아웃’ 한 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어흥’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였음.
- 친구관계인 ‘태준’에게 일대일 채팅을 보내어 서로 일정을 조율하려 함께 ‘태준’이 산책하기 좋다는 장소에서 만나 직접 등산해보기로하기로 약속을 잡았음.
- ‘태준’과 대화를 하던 중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자 ‘영식’은 자신도 사용하고 싶어 ‘태준’에게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 다양한 구매방식이 구현되어 있는 크레딧 충전 기능을 이용하여 체험삼아 100뎡을 구매하여 이모티콘을 구매하였음.
- 추후 자신과 절학적,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찾기 위해 또다시 랜덤 화상 채팅 기능을 이용할 예정임.

## ▼ 김명자

- 평소에 취미거리가 없어서 매일 사람이 별로 없는 점심에서 오후 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지하철을 타러 다닌다.
-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니 다들 바쁘게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의미없는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 그렇다고, 노인복지관에 가자니 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생각하던 중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어흥”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다.
- 60대가 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서 어플을 설치하였다.
- 빨리 이 앱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회원가입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물어보아서 넘기고 싶은데 넘기는 것도 없어서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대충 누르고 회원가입을 하였다.
- 일반채팅, 화상채팅, 소모임, 마이페이지, 챗봇(도우미), 이렇게 많은 글씨가 아래에 적혀있어서 도우미를 통해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 나는 지금은 화상채팅으로 하기도 부담스럽고, 소모임까지도 부담스러워서 간단한 일반채팅으로 들어갔다.
- 한명, 두명씩 얘기를 하다보니 잘 맞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를 맺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낸다고하니 그렇게 할게 없냐며 비꼬는 사람도 있어서 차단도 하고, 어플도 껐다.
- 집안일을 하던 중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악성 유저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있어 어플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하면서 기분이 풀렸다.
- 다음에는 화상채팅이나 소모임도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쳤다.

<https://deep-wide-studio.tistory.com/36>